

2022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 남북대결 성사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 예선에서 남북대결이 펼쳐진다.

한국은 17일(한국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아시아축구연맹(AFC) 하우스에서 열린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조 추첨에서 레바논, 북한, 투르크메니스탄, 스리랑카 등 네 팀과 같은 H조에 편성됐다.

조 편성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남북대결이다. 한국이 북한과 월드컵 예선에서 맞붙는 것은 2010 남아공 월드컵 3차와 최종 예선에서 잇달아 만난 이후 10년 만이다. 하지만 최종예선 원정 경기는 두 번 모두 평양이 아닌 '제3의 장소'인 중국 상하이에서 치렀다. 당시 북한은 태극기 계양과 애국가 등의 문제를 들어 남북 대결을 흠에서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2022 카타르 월드컵 최종예선 원정경기가 북한에서 정상적으로 치러질지가 큰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북한 원정경기가 정상적으로 열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18일 "북한이 최근 아시아축구연맹(AFC)컵 등 AFC 주최 대회를 안방에서 개최하고 있다."면서 이번 월드컵 예선도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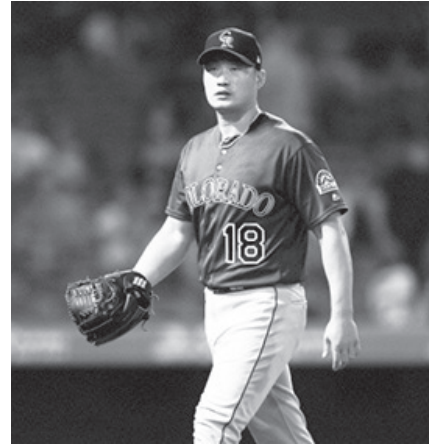
북한이 예정대로 경기를 개최할 경우 1990년 10월11일 평양에서의 친선경기 이후 29년 만에 북한에서 남자 축구 남북전이 열린다. 당시 북한에서 먼저 경기를 열고 10월23일 잠실종합운동장에서 경기를 펼쳤다. 29년 전 경기가 평화와 화합을 도모한 친선경기였다면 이번은 월드컵 티켓을 놓고 다투는 경쟁의 무대다.

한국은 북한에 상대전적에서 7승8무1패로 앞서 있다. 2008년 동아시아 대회 이후 최근 7번의 맞대결에선 한 번도 지지 않고 2승5무를 기록 중이지만 이긴 2경기는 모두 1-0으로 힘겹게 승리했다. 가장 마지막 대결인 2017년 12월 일본에서 열린 동아시아컵 대회에서는 북한의 자책골 덕분에 겨우 이겼다.

객관적 전력에선 분명히 한국이 한 수 위에 있지만 그동안 남북전에는 변수가 많았다.

시즌 아웃 오승환, 한국 복귀할까?

'끝판왕' 오승환(37·콜로라도 로키스·사진)이 팔꿈치 부상으로 시즌 아웃된 가운데 그의 향후 행보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8일 '스포츠월드'에 따르면 '텐버포스트'는 전날 버드 블랙 콜로라도 감독의 말을 인용해 "오승환이 오른쪽 팔꿈치에서 떨어진 뼈조각을 제거하기 위해 한국에서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오승환은 지난달 11일 복근 염좌로 부상자 명단(IL)에 오른 바 있다. 이후(6월 29일) 라이브 피칭을 소화하며 복귀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팔꿈치에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 시즌을 조기에 접게 됐다.

그렇다면 오승환은 다음 시즌에도 메이저리그 무대를 밟을 수 있을까? 콜로라도와의 인연은 사실상 끝이 났다고 봐야할 듯하다. 올 시즌이 끝나면 계약이 끝난다. 2016년 미국으로 건너왔던 오승환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에서 두 시즌을 뛰었고, 지난해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이적했다 시즌 중반 콜로라도로 트레이드됐다. 지난 시즌 핵심 불펜으로서 팀을 포스트시즌으로 이끌었지만, 올해는 부상으로 기대만큼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21경기 3승1패 평균자책점 9.33).

KBO리그 복귀도 유력한 선택지 중 하나다. 실제로 오승환은 지난 시즌 종료 후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

을 밝히기도 했다. 오승환은 현재 임의 탈퇴 신분이기 때문에 한국 무대로 돌아간다면 삼성 소속으로 뛰게 된다. 다만, 2016년 1월 해외원정도박 파문을 일으켰기 때문에 72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아야 한다. 재활과 징계 시점을 함께 가져가기 위해선 남은 연봉을 포기하고 콜로라도와의 계약을 바로 해지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MLB 트레이드루머스'는 "곧 FA가 되는 오승환은 고국으로 돌아가 선수 생활을 이어가거나 은퇴할 수 있다. 만약 메이저리그로 복귀하면, 악몽 같은 계약기간에 마이너리그 계약에 만족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승환의 메이저리그 4시즌 통산 성적은 232경기 16승13패45홀드 42세이브 평균자책점 3.31. 225%이닝 동안 삼진 252개를 잡았다. 블론세이브는 15개 있었다.

미국 세무사 시험 준비반

IRS Special Enrollment Exam



장흥범 교수 CPA, EA
현, 미주 공인세무사 협회 회장
C & C Group Inc. 공동 대표
회계학 학사
세법학 석사
회계학 박사 과정

LA 지역 강의

장소: 한국 교육원
204호실
680 Wilshire Pl.
Los Angeles,
CA 90005

무료 공개 설명회

◆ 7월 19일 (금) 저녁 7시

정규강의 (8주간)

◆ 저녁반: 매주 수, 금
6시반~9시
(7월 24일 수 첫수업)

OC 지역 강의

장소: 시민권자 협회
9636 Garden Grove Blvd, #17
Garden Grove, CA 92844
(아리랑 마켓 몰내 미미 안경원 2층)

무료 공개 설명회

◆ 저녁반설명회: 7월 18일 (목) 저녁 7시
◆ 주말반설명회: 7월 20일 (토) 오후 2시

정규강의 (7주간)

◆ 주중저녁반: 매주 화 목 저녁 7시~10시
(7월 23일 화 첫수업)
◆ 주말반: 매주 토요일 1시반~7시
(7월 27일 첫 수업)

오전반

장소: SH Tax Service
6281 BEACH BLVD
SUITE # 245
Buena Park, CA 90621

무료 공개 설명회

◆ 7월 19일 (금) 오전 10시

정규강의 (7주간)

◆ 오전반: 매주 월, 수, 금
오전 10시~12시반
(7월 22일 월 첫수업)

- IRS에서 발급하는 연방 자격증
- 납세대리 업무가 가능한 3대 자격증 중의 하나 (EA, CPA, Attorney)
- 세법 전문가 자격증
- 4지선다형 문제

평생 무료 재수강 • 무료 동영상 강의 제공

하나에 등록하고도 LA와 OC 전수업 중복 수업 가능

세무회계 사무실 개업에 필요한 실무연습

www.eatax.net 온라인으로 실무연습 가능

개인 세금보고서 시나리오 30개,

법인 세금보고 시나리오 10개로 직접 세금보고 업무연습

수강 신청 및 시험 상담
714-393-2238

시험 정보 및 동영상 강의
www.eatax.net
www.eatax.com

"학력, 전공, 신분 상관없이"
누구나 2달이면 합격
100% 합격 보장



▲ 세무사 시험 안내서



▲ LA강의 모습



▲ 세무사 시험 준비 교재 (95% 이상 적용 교재)

트럼프 세제 개혁을 반영한 신교재로 강의 - 7월부터 개정세법이 시험에 출제